

무공해식품 직거래사업 주도

지역사회에서 일한다 ④

거창여성회

“들깨송이 자반 할라치면 이슬 거리 때부터 밭도 지 때 몬 묵고, 눈도 몬부치고 시깁하는기라. 그러도 서울사람들이 이래 내 음식을 미더주이 곱담고 즐겁제.”

“회장댁이 조미료랑 합성세제 안 조타캐서 이자는 쪼매도 안 쓴다카이.”

제철을 맞은 메주와 청국장을 주문하러 읍에서 온 거창여성회 (이사장 유승희·40) 회원들과 살목마을 여성농민들의 정담은 조청으로 버무린 강냉이강정을 사이에 두고 끓일 줄 모른다.

경남 거창군 남하면 상촌리 살목마을은 88년 3월 거창여성회가 만들어진 이래 3년째 인연을 맺어온 직거래식품 생산지이다.

들깨송이, 우엉잎, 배추잎, 당근잎, 감자 등 온갖 채소로 만든 자반(부각)과 조청이 대표적인

직거래 품목이고 토란대, 고구마 줄기 등을 말린 나물, 들깨차, 찰차, 들깨기름, 고추장, 막장, 사과잼, 참기름 등 20여가지가 ‘거창여성회 무(저)공해식품사업부’ 상표를 달고 서울 여성민우회의 함께 가는 생활소비자협동조합, 부산·부천·목포·김천YMCA 등으로 팔려간다.

돛 살목에서도, 이장이 출생신고 받은 지가 10여년 전 일일만큼 젊은 사람들은 없고 중년여성농민들만 남아 농사일을 떠맡고 있지요, 여성을 위해 모인만큼 그들을 돕는 건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여성회가 직거래사업을 주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오랜 직거래의 경험이 여성회를

살아온 여자의 굴레가 사실은 사회의 불평등구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으며 우리는 절로 무릎을 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회 이사 오희숙씨(셋별국교 자모회 회장)는 창립 때의 분위기를 이렇게 소개했다.

그렇지만 여성단체연합 24개 회원단체 가운데 유일한 군단위

진보성향 강한 지역특성이 모임 자양분 여성 불평등굴레 깨는 활동 활발

새벽 해뜨기 전에 만드는 손두부와 콩나물은 일주일에 한번씩 읍내 30여가구로 배달된다.

거창여성회의 직거래활동은 주부중심의 소비자단체가 생산농민을 위해 주문관리를 대신 맡아주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요즘 우리 농촌 어디나 그렇

냥았다는 표현이 옳다”고 최윤정(43) 총무는 덧붙인다.

거창여성회 탄생은 86년, 거창읍 갈릴리교회 유성일 목사를 돕는 갈릴리후원회 주최 ‘지역사회와 여성문제’ 특별강연회가 계기가 됐다.

초창연사였던 김희선씨(당시 여성의 전화대표)의 권인숙씨 사건과 ‘매맞는 아내’에 대한 강의 를 듣고 커다란 감동을 받은 1백여명의 회원들이 여성을 위한 일을 하기로 뜻을 모아 이듬해 10월, 여성을 위한 ‘섬터’를 마련했고 반년 뒤 ‘거창여성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팔자거니 운명이거니 여기며

모임이 인구 9만의 소읍 거창에서 생겨나게 된 배경에는 서부경남권의 수도로 꼽히는 이 지역의 강한 진보성향이 깔려있다.

개방적인 민주교육으로 유명한 거창고, 셋별국민학교가 그 버팀목이라면 거창농민회, YMCA, 진교조지회, 우리문화연구회, 향민문화회, 거창사랑청년회(준비위), 아람신문(‘아람’은 거창의 옛이름) 등 크고 작은 민주단체 들은 무성한 가지를 이룬다.

이들 단체들과 지자체 선거기간동안 ‘지자체 공정선거관리위원회’(가칭)를 조직해 연대활동을 다져갈 예정이다.

주로 30~40대 주부중심으로



여성회 회원들이 꼼꼼히 양과 질을 살피고 생산자의 이름까지 적어서 공급하는 살목의 직거래식품 부각은 믿을 수 있고 향수가 어린 우리 먹거리로 늘 주문이 달린다.

출발했던 여성회는 지난해 대학을 마치고도 고향을 지키며 살겠다고 돌아온 ‘요즘 보기드문’ 미혼여성 10명을 새 회원으로 받아들여 기세가 높아졌다. 이들은 제1기 여성학당을 열어 ‘세계평화 여성평등(세평여평)’이란 소모임을 만들어냈고 풍물연습, 독서토론, 통일등반대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3월 여성의 전화 개선을 앞두고 여성상담원 교육과 기금마련 하루차집 준비가 당장 급하고, 제2기 여성학당 교육프로그램과

강사 선정작업도 해야 하고, 준비상태에 있는 한들소비자모임도 올해안에 독립시켜야겠고, 후원해오고 있는 어린이집 등 복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여성농민 건강실태조사와 상담도 서둘러야...”

이사장 유승희(40)씨를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 올해 할일을 챙기는 회원들은 고을 이름 그대로 ‘크고 밝은 평등의 세상’을 앞당기려는 의욕으로 가득차 있었다.

(거창=김경애 기자)